

광주, 마을 소통공간 사업 전국 롤모델 각광

市, 2016년부터 34곳 조성 올해도 지산1동 등 6곳 지원 지난해 공동체 조성사업 '대상' 사랑방·쉼터·돌봄 공간 활용

광주시가 시민과 협업을 통해 마을 소통공간 조성사업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전국 차세대 공동체 조성 사업 중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광주시는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6개 단체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을 주민 협업을 조성한

다"고 21일 밝혔다.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문화, 돌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각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 마을공동체를 선정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업비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거쳐 동구 지산 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꽃길 따라 정감있는 미로마을조성'을 비롯한 서구 양동, 남구 봉선 1동, 북구 석곡동, 북구 두암3동, 광산구 신흥동 6개 마을에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 6곳에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문건축사 자문과 주민 의견을 접목하는 "디자인스쿨"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스쿨 과정에서 수렴한 자문 및 의견은 주민과 협의해 공간설계도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곳의 마을공동체에 소통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주민교육장, 마을카페, 공유부엌, 유아놀이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

한 '2019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마당' 행사에서 광산구 수완 장자울마을 휴먼시아 4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소통공간을 활용한 '마을 안에서 돌봄 실현'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을활동 위축 등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활발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김순옥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마을커뮤니티공간이 서로 소통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하세요”

광주시 민간 병·의원 확대 시행

광주시는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시행했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종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에 걸리면 치명률이 60~80%까지 증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13통장사업 참여자 187명에 만기 이자 지급 광주시 하반기 2기 모집

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저축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한 THE(터)드림통장 제1기 참여자들에게 만기 축하이자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드림통장은 청년13(일+살)통장 후속사업으로 청년13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만기 졸업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6개월 동안 추가 적립을 유지하는 경우 17%에 달하는 만기 축하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3(일+살)통장 통장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통장사업이다. 제1기 더드림통장 사업은 2018~2019년 청년13통장 졸업자 626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을 모집했으며, 6개월간 통장을 유지해 만기 축하이자를 지원받는 청년은 전체의 93.5%에 해당되는 187명이다. 광주시와 향토기업 보해양조는 2019년 11월 'THE(터)드림통장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해양조는 더드림통장 사업에 5년간 매년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고, 광주시도 연간 300만원씩을 더해 청년들에게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13통장사업 3~4기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2기를 사업을 시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뱀 물림 사고 주의하세요”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 임직원들이 최근 야생 뱀 출몰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단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광주전, 영산강 등 관리구역에 대해 '상습 뱀 출몰지역'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광주전 두물머리 등 120개소에서 뱀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뱀 출몰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뱀 활동이 왕성한 오는 9월까지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 국가 재난관리 유공 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11개 심사지표 모두 높은 평가 광주시 북구가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11개 재난관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심사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북구는 '2020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1965년부터 55년 동안 이어온 국가 재난관리 유공 평가는 재해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으로 국가 재난 관리에 이바지

한 공로가 큰 민·관·군을 발굴·표창 등을 통한 자기진작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북구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업적 등 11개 심사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지난해 재난안전 예산을 200% 이상 증액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도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중 계절별·테마별 재난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습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취약계층 안전 인프라 구축, 풍수해 보험·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시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소방본부 법령 개정 홍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권리보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변경과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엔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 개시,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에 따른 설치

비용 중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법'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을 금지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사장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법은 9월 1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8월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8월 말 이후 특별할인 기간 연장 여부를 재확인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15일 기준 총 4456억원이 발행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가계간금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등 2420여억원의 각종 정책자금을 상생카드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남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